



## 회사노조 이대로 두면 올해 큰일 난다!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jwhan77@gmail.com

\* 본 글은 우선 간단하게 현장에서 선전용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보고서는 좀 더 중심 내용을 지회와 토론한 후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유성지회 선전물에 유성지회 명의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 ○ 2011년, 자본은 15억 더 챙기고, 노동자는 10억 덜 받았다

유성기업은 올해 2,794억 매출에 87억원의 순익을 거뒀다. 매출과 순익 모두 2010년에 비해 20% 이상 성장했다. 이는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이자, 2011년 제조업 평균 성장률을 뛰어넘는 결과다. 작년 매출 증가는 유성기업 직장폐쇄에 관여해 온 현대차가 유성지회 파업 전후로 20% 넘게 납품단가를 높여 준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

(단위:억원)

	2010	2011	증가율
매출액	2,299	2,794	22%
영업이익	-8	-5	38%
당기순익	72	87	21%
급여총액(제조)	513	501	-2%

이에 반해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줄어들었다. 2011년 급여 총액은 519억원으로 2010년보다 오히려 12억 원이 줄어들었다. 물가인상률까지 감안하면 2010년 대비 2011년 실질 임금총액은 6% 하락했다.

(단위:억원)

	2010	2011	증가율
급여총액(제조)	513	501	-2%
급여총액(관리)	16	18	13%
배당	25	25	0%
제조 급여1원당 매출액(원)	4.4	5.5	24%

사측은 임금 감소에 대해 파업을 이유로 들지만, 작년 생산량은 2010에 비해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임금 감소의 핵심 이유는 회사노조가 현장에서 노동강도 상승을 용인하면서 생산량 대비 임금이 오히려 줄어든 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2010년 임금 1원당 매출액이 4.48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1년에는 5.58원으로 24% 증가했다. 한편, 노조탄압과 현장통제를 해오던 관리직들은 2010년에 비해 급여가 13% 증가했다.

### ○ 영업이익 꼽수. 내부거래를 통한 154억 규모의 영업이익 이전 효과

2011년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몇 가지 사측의 꼽수가 드러났다. 그 중 하나는 영업이익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측은 2008년 30억, 2009년 150억, 2010년 49억 영업적자가 났다며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비용절감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2011년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바뀌면서 예전에 제조원가에서 과도하게 잡던 감가상각이 줄어들면서 영업적자가 크게 줄었다. 2010년의 경우 이 차이가 41억 원에 달한다.

	변경 전	변경 후	차이
2010년 영업이익	49억원 적자	8억원 적자	41억원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르면 2011년 영업적자는 5억원이다. 물론 이렇게 줄어든 영업적자에도 여러 꼽수가 여전히 존재한다. 유성기업에 생산품 전량을 납품하는 유성 계열사 Y&T파워텍과 유성피엠공업과의 내부 거래 때문이다. 유성기업의 제조원가에는 이들 기업에서 사들이는 스피니 실린더라이너, 밸브시트 등이 원가에 포함되는데, 그룹 차원에서 파워텍, 피엠공업에 이익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위:억원)

	2011년	유성기업(개별)과차이
계열사포함매출액	2,797	3
계열사포함영업이익	148	154

위 표는 Y&T파워텍과 유성피엠공업을 포함한 매출액, 영업이익이다. 내부분 두 기업은 유성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은 3억 밖에 늘지 않는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54억

이나 늘어나는데, 이 중 상당액은 사실상 유성기업이 계열사에 대해 보장해 주는 액수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유성기업이 굳이 자신의 회계장부에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다른 계열사에 남겨 주는 이익이다.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이 사측이 주장하는 영업이익 적자에 대해 책임을 질 이유가 하등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계열사까지 합한 영업이익에 대해 분배를 요구해야 한다.

### ○ 외주화는 늘고, 해외생산은 정체

한편, 유성기업 사측은 작년 직장폐쇄, 회사노조 설립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외주화를 확대했다. 2010년 83억에 불과했던 외주가공비(아웃소싱 업체들에 대한 비용)가 2011년 110억으로 32% 급증했다.

(단위:억원)

	2010	2011	증가율
외주가공비	83	110	33%
중국생산(CUPR)	294	303	3%

중국생산량은 2011년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기준으로 3% 가까이 늘어났을 뿐이며, 이도 환율 부분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2.6% 정도 증가했을 뿐이다.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성장(10년 103만대 → '11년 117만대, 13.2%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 업체와의 경쟁으로 인해 매출이 크게 늘고 있지는 못하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도 한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유성기업 생산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 생산량 증가보다는 외주가공비 증가다. 특히 작년 직장폐쇄, 회사노조 설립 이후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생산하던 공정, 또는 제품 일부를 외주화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 ○ 현장통제강화와 정부의 휴일특근규제정책. 대응 못하면 진짜 골병들어 죽는다!

창사 이래 최고 매출과 최고 이익을 올린 유성기업은 2012년 더욱 공격적으로 임금삭감과 노동강도 강화를 계획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생산 계획을 감안해 보면 피스톤 링 기준으로 가장 생산이 많았던 2010년 5천8백만개보다 최소한 5% 이상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올해 생산은 6천1백만 ~6천2백만개 사이일 것이다.

만약 2010년의 노동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2012년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2010년 월평균 산업특근시간(아산공장 기준)이었던 57시간보다 12시간 더 많은 69시간을 일해야 하며, 연환산으로는 143시간을 더 일해야 한다. 만약 사측이 지금처럼 임금총액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을 묵

고 노동강도를 올린다면 시간당 생산개수가 5%(2교대제를 기준으로 하면 아산에서 시간당 54개 더 생산해야 한다) 가까이 늘어야 한다. 사측은 여유시간을 더 줄이고, 관리자들의 현장 통제는 더 늘릴 것이다.

현재 사측과 회사노조의 행태로 보면 노동강도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산량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경험하고 있듯이 이렇게 일하다가 정말 골병들어 죽는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한 가지 추가 변수가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휴일 특근의 연장근로포함’ 사안이다. 현재는 휴일특근이 주12시간 연장근로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다시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월 잔업특근 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2010년 기준으로 유성기업은 주야교대조는 월 7시간을, 3교대조는 월 21시간 가량을 줄여야 한다.

유성기업지회가 예전처럼 교섭을 진행 할 수 있다면 추가인력 확보를 통해 대응할 수 있겠지만 현재 회사노조는 이런 생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력을 가지고 특근을 모두 없애고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노동강도(시간당 생산개수)는 7.5% 가까이 증가되어야 한다. 2교대제를 기준으로 보면 아산공장에서 시간당 79개를 더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 ○ 다시 금속노조로 뭉치자! 회사노조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무덤이다!

작년 현대차와 유성기업 경영진들의 합동 작전으로 유성기업지회가 많은 어려움에 빠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단결하지 못하면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감소, 노동강도 강화, 외주화로 인한 고용불안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올해 매출 확대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던 현대차의 지원이 중단될 것이다. 현대차의 납품단가 인상은 금속노조 탄압용이었고, 만약 자본의 의도대로 어용노조가 세를 확대하면 이 지원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 현재 현대차의 경영기조는 비용절감이다.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사측을 압박하지 않으면 현대차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임금 삭감 및 고용 축소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살 길은 다시 금속노조로 뭉쳐 함께 싸우는 것이다. 노조 탄압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이명박 정권의 생명은 1년도 남지 않았다. 반면 전국민적인 노동시간단축 요구, 재벌 개혁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모든 사회적 여건은 금속노조 유성지회에 유리하다. 다시 금속노조로 뭉쳐 이 기회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회사노조와 사측의 노동통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인지, 올해 우리 스스로의 결단에 달렸다. <끝>